

전주사랑상품권 12월 최대 150만원 충전

11월 미충전 금액 소급 충전해 150만원까지 가능 '찾아가는 가입 지원단' 통해 상품권 홍보 강화

전주사랑상품권 충전한도가 12월 한 달간 1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11월 미충전자의 경우 50만원을 소급 충전할 수 있는 보너스 이벤트가 열린다.

전주시는 전주사랑상품권의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위해 11월 미충전 금액을 소급해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가능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늘리고 '찾아가는 가입 지원단'을 운영해 상품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월 충전가능액은 50만원이지만 이달에만 1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 데다 11월 미충전 금액

까지 소급 가능해 최대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12월 신규 가입자는 10일부터 소급 충전이 가능하다. 11월에 50만원을 다 충전하지 않았다면 14일부터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한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어서 쓸 수 있다.

시는 150만 원을 모두 쓰면 15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가입 지원단' 150명은 14일부터 전주사랑상품권 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7일 '나는 기부천사가 될 수 있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돼지저금통 그림이 그려진 전주사랑상품권 카드 디자인 주인공인 오주희 씨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맹점 모집 및 이용 홍보에 나선다. 지

원단은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품권 모바일 앱 설치 및 카드발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 전주사랑상품권 매출액의 일부(1% 정도)를 기부할 기부천사가맹점도 모집한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복은행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7일 '나는 기부천사가 될 수 있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돼지저금통 그림이 그려진 전주사랑상품권 카드 디자인 주인공인 오주희 씨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건지산~동물원 산책로 구름다리로 연결

전주시, '건지산 소리로 산책로 연결사업' 연내 마무리

건지산 산책로와 동물원 산책로가 이달 말 구름다리로 연결된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착수한 '건지산 소리로 산책로 연결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9일 밝혔다. 건지산 산책로와 동물원 산책로를 구름다리로 연결하는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22억원이 투입됐다.

건지산과 동물원 산책로는 차도인 소리로로 분리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가 경사지고 굽어 있는데다

교통량도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장 60m, 폭 2.5m의 구름다리로 산책로를 연결하고 있다. 구름다리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사로로 구축했고,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ED 보안등과 조명을 갖췄다.

시는 구름다리 설치로 건지산과 동물원을 연계해 둘레길이 조성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가혹행위 상사 초월" 지적장애 여성 살해 주범 2심서 무기징역

원문에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간에 암매장한 일당 주범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B씨에게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35·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익산의 한 일룸에서 지적장애인 D(20·여)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자원봉사대상 단체분야 대통령 표창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단체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날(12월 5일)'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수여하는 자원봉사 분야 최고의 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행사 없이 김승수 전주시장이 상을 전수했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65만 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33%에 달하는 21만 명 이상으로, 봉사활동률은 40.5%를 기록해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단체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날(12월 5일)'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수여하는 자원봉사 분야 최고의 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행사 없이 김승수 전주시장이 상을 전수했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65만 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33%에 달하는 21만 명 이상으로, 봉사활동률은 40.5%를 기록해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전주시, 안전한 통학환경 만들기 '최선'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통학환경 만들기 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시는 총 5,000만 원을 들여 평화동 양지초등학교 주변 약 80m의 도로 폭을 9m에서 7m로 줄이고 그만큼 인도와 안전펜스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

다.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색작업도 했다.

이와 함께 ▲효천초(효자동) ▲자연초(송천동) ▲반월초(반월동) ▲새솔유치원(송천동) 등 4곳에 6억여원을 투입해 보호 펜스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차선 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및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을 개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일초등학교와 삼천초등학교, 오렌지어린이집 등 3곳의 노상주차장 36면은 없앴다. 전주초와 금안초, 효자초 등 3곳, 143면도 폐지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20여 개 초등학교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경찰서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통학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직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중심으로 1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투입해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또 ▲풍남초 ▲우전초 ▲안산서초 ▲전주교대부설초 ▲홍산초 ▲새연초 등에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단속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 거버넌스 토론회

시·한국여성소비자연합복지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위해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복지회(소장 김보금)는 9일 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전주푸드 거버넌스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생산 분과 ▲공공먹거리 분과 ▲먹거리시민 분과 등 전주푸드 거버넌스가 분과별로 논의해온 내용을 발표했고,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박사가 '2021년 전주푸드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생산 분과에서는 과채류, 염채류 등 기획생산 품목 상위 30개를 선정하고, 생산품목 및 출하능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품목별로 조직화하고 생산기반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소농 다품목으로는 연중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농과 대농을 연계한 품목별 기획생산의 필요성과 전주시 농업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의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공공먹거리 분과에서는 ▲공공먹거

리 지역산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학교·공공급식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복지회(소장 김보금)는 9일 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전주푸드 거버넌스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생산 분과 ▲공공먹거리 분과 ▲먹거리시민 분과 등 전주푸드 거버넌스가 분과별로 논의해온 내용을 발표했고,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박사가 '2021년 전주푸드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생산 분과에서는 과채류, 염채류 등 기획생산 품목 상위 30개를 선정하고, 생산품목 및 출하능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품목별로 조직화하고 생산기반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소농 다품목으로는 연중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농과 대농을 연계한 품목별 기획생산의 필요성과 전주시 농업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의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공공먹거리 분과에서는 ▲공공먹거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